

美,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장기화

산업부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까지 대비 할 것”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단 유예함에 따라 철강관세 면제 협상은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결국 한미 FTA 협상에서 얼마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느냐가 철강 관세 면제 여부의 바로미터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를 하루 앞둔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과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USTR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면제 협상은 4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

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측의 양보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은 같은 이유로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멕시코를 협상에서 제외했다.

우리 통상 당국도 이번 제외 결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철강 232조로 철강 수출국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김 본부장은 이달에 만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 17일 한미 FTA 3차 협상이 끝났지만 대표단도 미국에 남아 미 정부와의 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관세 면제 여부를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까지의 이에 대한 대비 노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호 기자



이스타항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협약식

이스타항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직장인 월급 정기기부 프로그램인 ‘착한일터’의 올해 첫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기부협약식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착한일터’ 현관식을 전달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최중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과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승무원들이 해당 직원들에게 22일부터 강원랜드 인사위원회인 인재개발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인재개발위원회는 27일과 28일, 30일에 걸쳐 심의를 할 예정이다. 29일은 강원랜드 정기총회가 있어 제외됐다.

심의 형태는 인재개발위원회에 한 사람씩 들어가며 해당 직원들에게는 마지막 소명 기회가 된다.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달력 수익금은 전액 지적재산권 수익금, 권리를 기부하는 ‘착한일터’에 기부해 1호 기업 회원 가입자가 됐다. 임직원들의 월급 정기기부 성금과 달력판매 수익금은 빈곤, 질병, 소외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지원된다.

최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힘을 합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착한일터와 착한권리 가입을 시작으로 이스타항공을 착한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호 기자

하림, ‘열망 브랜드’ 선정

중심성·차별성으로 브랜드 가치 높여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제품의 대표성과 차별성이 가장 뛰어난 열망 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 23일 (주)하림은 최근 한국농협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8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냉장·냉동 부문에서 닭고기 브랜드로서 얼마나 대표하는지를 의미하는 중심성(centrality)과 여타 브랜드로부터 얼마나 두드러지는지를 의미하는 차별성(distinctiveness)을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는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기업 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속화한 것으로 소비자의 기업 신뢰 수준을 확인 할 수 있는 국내 대표 브랜드 평가제도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 남녀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을 통해 선정했으며, (주)하림을

비롯해 담채(김치냉장고), 하이마트(전자제품), LG 휘센(에어컨) 등이 대표성과 차별성이 모두 높은 열망 브랜드로 평가를 받았다.

223개 산업군 1~3위까지 조사한 결과 (주)하림은 닭고기 냉장·냉동 부문에서 2위인 목우촌과 3위인 마니카를 제치고 1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10년 이상 연속 1위를 차지한 브랜드에게 주어지는 골든 브랜드에 선정됐다.

(주)하림이 열망 브랜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농장-공장-시장’을 연결한 3장(場) 통합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사육관리와 생산관리, 고객 만족 경영 등을 추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전 과정 HACCP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병아리부터 완제품 생산·공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위생관리를 추진해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주)하림은 현재 최신 도계 설비 시스템을 적용한 익산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제품의 대표성과 차별성이 가장 뛰어난 열망 브랜드로 선정됐다.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늘어나는 1인 가구 및 혼밥, 혼술족을 위한 간편하게 닭고기를 요리할 수 있도록 부분육과 양념육 제품을 생산해 닭고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주)하림 이문용 대표이사는 “현

재 1위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품 개발과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가금 식품기업 10위에 오를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강원랜드 퇴출 266명, 채용취소 절차 돌입

강원 정선 강원랜드가 2013년 채용 비리로 합격한 226명에 대해 직권면직이 아닌 채용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강원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통보를 받은 강원랜드는 해당 직원들에게 22일부터 강원랜드 인사위원회인 인재개발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인재개발위원회는 27일과 28일, 30일에 걸쳐 심의를 할 예정이다. 29일은 강원랜드 정기총회가 있어 제외됐다.

심의 형태는 인재개발위원회에 한 사람씩 들어가며 해당 직원들에게는 마지막 소명 기회가 된다.

인재개발위원회 구성은 부사장이 위원장이며 본부장 2명, 실장 14명 등 총 17명이다.

인재개발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퇴출 절차가 바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부분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직권면직은 회사 규정에 의한 징계라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하나 이번 건은 입사 당시 부정행위라 징계위원회가 아닌 강원랜드 내부 인사위원회인 인재개발위원회가 열리며 이를 통해 채용취소 절차가 진행된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최수호 기자

주택금융공사, 4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r-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n-보금자리론’은 지난 달과 동일한 연 3.40%(만기 10년)~3.6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깁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3.30%(10년)~3.55%(30년) 금리로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이면 0.40%(포인트 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0.80%(포인트) 할인 받을 수 있다. /최수호 기자

준 프리미엄급 소주 ‘참나무통 맑은이슬’이 홍콩에 첫 수출된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홍콩의 주요 주류공급사와 함께 참나무통 맑은이슬의 판매를 시작하고 중화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출 첫 물량은 3만병 규모다. 홍콩 유명 레스토랑 및 유흥주점, 슈퍼마켓

하이트진로, 참나무통 맑은이슬 홍콩 수출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참나무통 맑은이슬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준 프리미엄급 소주로, 3년 이상 숙성한 쌀 발효 증류 원액을 블렌딩해 목통의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꿀 맛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 16도, 300ml 용량으로 차별화했다. 한정 생산에 따라 수도권외의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번 수출은 국내 출시 이후 지속된

중화권 시장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홍콩은 전 세계 주류 브랜드들의 각축장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트진로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핵심 상권 및 유명 레스토랑, 대형 슈퍼마켓 등에 우선 공급하고 현지인 대상의 인지도를 쌓아갈 계획이다.

최수호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